

“5월은 ‘YES 키즈’…온가족의 네버랜드 ‘달성 나들이’ 함께해요”

화석박물관 과학 교육·습지생태학습관 해설 진행 인기 유튜버 출연 ‘YES 키즈존 축제’ 호기심 쑥쑥 유가읍 실내놀이터 ‘네버랜드’ 군민 대상 50% 할인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달성군에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맞춤형 교육도시’답게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즐기면서 배우는 과학·생태, 여러 시설 연계한 할인 혜택도

전국 최초 화석 전문 국립박물관인 국립 달성화석박물관이 운영되고 있다. 유가읍에 위치한 박물관은 지난해 10월 개관 후 지금까지 7만여 명이 방문했다. 주말 교육 프로그램 등 어린이들을 위한 다채로운 과학 교육 활동을 기획, 단순한 관

람을 넘어 교과 등과 연계할 수 있는 생생한 체험활동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인근 시설 및 지역 관광과 연계한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유가읍 국립대구과학관 당일 입장권을 소지한 시민은 50% 할인된 가격으로 달성화석박물관 입장권을 구매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오는 5월1일부터 대구시티투어, 달성관광투어 당일 승차권 소지 고객은 달성화석박물관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달성화석박물관과 이웃한 국립대구과

학관 역시 아이들의 호기심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장소다. 상설전시 해설은 물론 인공지능(AI) 등 현대적인 추세에 발맞춘 기획전시 등이 이어진다. 4·5월은 가정의 달을 기념해 기후변화 특별전, 과학문화 예술공연, 우주를 주제로 한 체험 행사 등을 개최한다.

그리고 달성군의 권역별 관광명소에도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학습·체험공간이 있다. 회원유원지·사문진나루터 인근 달성습지생태학습관이 그 예다. 아이들은 자연 환경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전시를 보며 습지의 특성과 맹꽁이, 수달 등 생물들에 대해 생생하게 배울 수 있다. 단체 및 개인 방문객을 대상으로 습지탐방로 등에서의 해설도 진행한다.

또한 다사읍의 대표 관광지인 강정보에서는 디아크문화관이 시민들을 반긴다. 방주 형태의 독특한 건축 설계로 주

목을 받은 문화관은 내부에 전시실, 갤러리, 전망대 등을 갖추고 있다. 5월 6일까지 순회전시 ‘함께하는 우리 강’도 이뤄지고 있다.

◆노키즈존 아닌, 아이 환대하는 ‘YES 키즈존’ 축제!

달성문화재단은 가정의 달을 맞아 ‘2025 YES! 키즈존’ 축제를 개최한다. 어린이를 존중하는 문화를 널리 확산하기 위한 행사로, 2023년에 처음 열려 올해로 3회를 맞는다.

행사는 5월10~11일까지 강정보 디아크광장, 5월31일~6월1일까지 국립대구과학관 일원에서 진행한다. 아이들은 피크닉존 등 테마파크형 공간 체험, 무대 프로그램 등을 즐길 수 있다. 1회차 행사에는 원조 초통령 크리에이터 ‘도티’, 2회차는 과학 유튜버 ‘웨도’가 출연해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또한 지난해 문을 연 유가읍 테크노스포츠허브 내 공공형 실내 어린이 놀이터 ‘네버랜드’ 역시 지역 어린이와 보호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장소다. 지난해 1월 개관 후 올해 3월까지 누적 이용 인원은 5만8천여 명이다. 네버랜드에는 장애물을 통과하는 챌린지 코스, 트램폴린, 볼풀 등 놀이시설이 가득하다. 회차당 입장료는 8,000원으로 시중 키즈카페보다 저렴하다. 달성군민은 50% 할인도 적용된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달성군 곳곳에 자리한 놀이·체험 공간들은 아이들의 신체적, 지적 성장을 돕고 가정의 육아 부담도 덜고 있다”며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달성군에서 온 가족이 함께 배움과 휴식이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호 기자



1 지난해 개장한 국립 달성화석박물관은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교과 연계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어 7만여 명이 방문했다.



2 회원유원지·사문진나루터 인근 달성습지생태학습관에는 습지의 특성을 살펴볼 수 있으며 맹꽁이, 수달 등이 전시돼 있다.



3 지난해 ‘2025 YES! 키즈존’ 축제 모습.



4 지난해 문을 연 유가읍 테크노스포츠허브 내 어린이 놀이터 ‘네버랜드’ 모습.

군위 청년·신혼부부 주거난 해결책 없나

기자수첩



배철한
사회1부

군위에 청년과 신혼부부가 살 집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군위군은 최근 몇 년간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대구 편입과 신공항 유치로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청년층과 신혼부부가 군위로 유입됐다. 하지만 그들의 주거난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군위군은 현재 군위군청, 교육청, 경찰서 등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2030세대와 신혼부부는 좁아 200명이 넘는다. 이들 대부분은 인근 대구와 구미에서 출퇴근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 문제는 군위의 급등한 집값과 전·월세 값이다. 신축 원룸 월세는 50~60만 원, 34평형 아파트는 3억~3억 5천만 원에 거래된다. 이런 주거비 부담에 청년들은 군위를 떠날 수밖에 없다.

군위군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대책을 내놓았다. 공무원 기숙형 원룸 19실을 제공하고, 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에는 15개실의 기숙사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26년까지 희망주택 20세대를 건립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런 대책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주거 수요를 따라가기에는 역부족이다.

물론 군위군은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청년층과 신혼부부가 직면한 문제는 단기적인 해결책으로는 해결되기 어렵다. 군위군이 제공하는 기숙사와 주택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 수는 극히 부족하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주택들이 정작 군위에 정착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충분히 매력적인 선택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다.

군위군이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려면 더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 가장 시급한 건 주택 공급 확대다. 노후 아파트나 빈집을 재개발해 청년들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늘리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또한, 외곽지나 빈공간을 활용한 주택 단지 개발도 필요하다. 군위군은 이미 일부 주택 개발을 진행하고 있지만, 그 속도와 규모는 충분하지 않다.

한 주민은 “대구시와 군위군이 협력해 3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를 재개발하거나 빈 땅을 매입해 청년 주택을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말이 결코 과장된 요구가 아니라 사실은 군위군의 주택 공급 상황을 보면 알 수 있다.

이제 군위군은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 주거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군위군의 미래도 그만큼 불투명할 것이다. 청년들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듣고, 그들의 현실적인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

군위군,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이 필요하다.

“달서구로 선사시대 시간여행 떠나자”

선사시대 테마거리 3단계 조성 사냥·토기 제작 등 생활상 재현 뮤지컬 등 다양한 신규 행사도

대구 달서구청이 오는 26, 27일 이틀간 선돌마당공원, 선돌공원, 달서선사관, 한샘정동공원 등 일원에서 ‘2025 달서 선사문화체험축제’를 개최한다.

선사시대를 주제로 한 이 축제는 2014년

간추린 AI 뉴스

중구, 미디어거리 동성로 조성 옥외광고물 설치 중간보고회

대구 중구청이 최근 ‘동성로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이하 특정구역) 운영계획 수립 연구’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해 동성로가 관광특구 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른 것이며, 특정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옥외광고물법상의 규제가 완화되어 건물 외벽에 대형 디지털 광고물 설치가 허용된다.

중구청은 이를 통해 동성로를 뉴욕 타임스스퀘어(이하 타임스스퀘어) 일본 오사카 도톤보리처럼 상징성과 흥미를 갖춘 미디어 거리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대형 디지털 화면을 활용한 광고뿐만 아니라 미디어아트를 접목한 연출도 가능해져 관광객 유입에 긍정적인 효과를

시작돼 가족단위 방문객에게 선사문화유산을 쉽고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는 교육형 관광 콘텐츠로 자리매김해 왔다.

이번 축제는 선사시대로 테마거리 3단계 조성 선돌보도교 준공에 맞춰 축제장소를 기존보다 더 넓혔으며 ‘캐리와 친구들’ 뮤지컬, K-POP 댄스, 달서구 대표 캐릭터 달수·달희 선발대회 등 신규 프로그램이 대거 추가된다.

축제 첫날인 26일 오후 1시부터는 상시

체험 부스와 함께 선사퍼레이드, 패션쇼, 인형극, 키즈 매직쇼, 버블쇼, 버스킹 등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오후 6시 40분부터는 선사무용제를 시작으로 개막식과 선사음악회가 이어진다. 27일은 오전 10시 선사그림그리기대회를 시작으로 ‘캐리와 친구들’ 공연, 달서구 대표 캐릭터 달수·달희 선발대회, 사냥·뉘시·불 지피기·토기 제작 등 선사시대 생활을 재현하는 체험 프로그램이 하루 종일 운영된다.

권종민 기자

지방세포인트 제도 신설 호평 남구, 지방세 발전포럼 우수상

대구 남구청이 대구시가 주관한 ‘2025년 지방세 발전포럼’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포럼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 분야 우수 연구과제 공유와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통한 지방세정 발전을 목적으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대구시를 비롯해 9개 구·군 지방세담당공무원, 한국지방세연구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남구청은 지방세포인트를 통해 지방세 납세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성실납세를 유도하는 ‘지방세포인트 제도 신설’이라는 주제의 연구 결과를 제시해 우수상을 수상했다.

대구일보 AI 기자